

---

## 삶 속에서 내가 만나 본 한글

김경석 · 부산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SC2(문자 코드) 위원장

---

### 고교 1년 동안 모든 수업 내용을 한글 가로 풀어쓰기로 공책에 적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인 1969년에 도서관에 갔다가 우연히 최현배 님의 한글 가로 풀어쓰기 책을 보게 되었다. 글쓴이는 지금도 그렇지만,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려는 생각이 많았던 터라, 그 책을 자세하게 읽어보았다. 그때만 해도 컴퓨터는 일반인과 멀었고, 타자기가 겨우 있던 때라서 가로 풀어쓰기가 아주 좋아 보였다.

일단 풀어쓰기를 다 익히고 나자 글쓴이는 큰 결단을 하게 되었다 - 모든 수업 내용을 공책에 가로 풀어쓰기로 적는 것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엉뚱한 생각이었다. 그런데 가로 풀어쓰기로 적을 때는 모아쓰기와 거의 같은 속도로 적을 수 있어서 문제가 없었지만, 가로 풀어 쓴 것을 읽는 것은 아주 힘들었다.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빨리 읽을 수가 없어서 애 먹었던 적이 있다. 거의 만 1년을 이렇게 했다. 아마 한글 가로 풀어쓰기를 글쓴이만큼 열심히 실천한 사람은 드물지 않을까 한다. 그때의 공책이나 일기장을 다 버린 것이 안타깝다. 지금 보면 재미있을 텐

데…….

결혼한 뒤에도 일기를 가끔 그렇게 적었다. 나중에 아내가 혼자 힘으로 그 암호(?)를 풀어서 자기에 대해 나쁜 얘기를 적어둔 걸 알고는 화를 막 내기도 했다. 지금은 워낙 컴퓨터가 발달했기 때문에 한글 가로 풀어 쓰기는 쓸모가 없다고 본다.

## “金景奭”에서 “金경석”으로 이름을 바꾸다

일본에 들어갈 때 입국 카드에 로마자로만 이름을 쓰면, 많은 경우에 한자로도 쓰라고 하여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 여권에는 한글과 로마자로만 이름이 적혀 있는데도, 그 때문만은 아니지만, 2007년에 좀 특이한 개명을 하였다.

개명이라면 보기를 들어 일본식 이름 “박 영자”를 “박 해솔”로 바꾼다든지 어감이 좋지 않은 이름을 바꾸는 식인데, 글쓴이는 “金景奭”에서 “金경석”으로 개명하였다. 성을 빼 이름 부분을 한자에서 한자 발음과 같은 한글로 바꾼 것이다. 글쓴이는 이렇게 바꿀 수만 있으면 좋겠다고 오래 전부터 생각했지만, 개명 절차가 복잡하고 또한 이런 개명을 허락해준 적이 없다고 하여 늘 망설이며 못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봉원(알라) 님이 이런 개명의 길을 처음으로 뚫었다는 글을 보고는 곧바로 연락하여 개명 신청 자료를 알아내었다. 그리고 글쓴이도 자료를 만들어서 부산법원 가정지원에 우편으로 신청하였다. 참고로 이런 것은 비송 사건이라고 하여서, 신청자가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서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서류만 갖추어서 신청하면 판사가 결정하여 결과를 우편으로 알려준다.

신청한 뒤 한 달쯤 지나서 개명을 허가한다는 결과를 통보받고 몹시 기뻐다. 아래는 호적에 나와 있는 개명에 관한 부분이다.

호주	김(金)경석		
개명	[개명허가일]	2007년 09월 12일	
	[허가법원]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신고일]	2007년 09월 28일	[신고인] 김경석
	[송부일]	2007년 10월 04일	[송부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기재일]	2007년 10월 04일	
	[개명전이름]	경석(景奭)	
	[개명후이름]	경석(경석)	

얼마 뒤 일본에 가게 되는데, 그때 이름을 한자로 적으라고 하면 나는 한자가 없다고 말해서 일본 출입국 관리를 어리둥절하게 해 주고 싶다.

6·25때 북에서 내려와 사람들을 잡아 가둔 뒤 명단을 만들 때, 사람 이름을 한글로만 적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정리하더라는 얘기를 공병우 박사에게서 들었다. 어차피 한자가 있어도 동명이인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람을 유일하게 식별하는 기호는 주민등록번호이다. 그것만 있으면 한자가 있든 없든 사람을 식별할 수 있다. 실생활에서는 한자가 거의 남아 있지 않는데, 유독 가족 관계 등록부와 주민등록부에만 한자가 남아 있다.

지금 북에서는 사람 이름에 한자를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통일 된 뒤 또는 통일을 대비하여 앞으로 우리도 가족 관계 등록부에 한글 이름만 적고, 한자를 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술선수범하는 뜻에서, 애 둘은 모두 한글 이름을 지어 주었다.

옛날에는 편지 봉투에 주소와 이름을 모두 한자로 썼지만 그건 정말 호랑이 담배 먹던 때의 얘기가 되어 버렸고, 요즘 우리나라 사람이 실제 우편물에서든 전자우편에서든 주소, 이름을 한자로 쓰는 사람은 거의 없다. 세상이 바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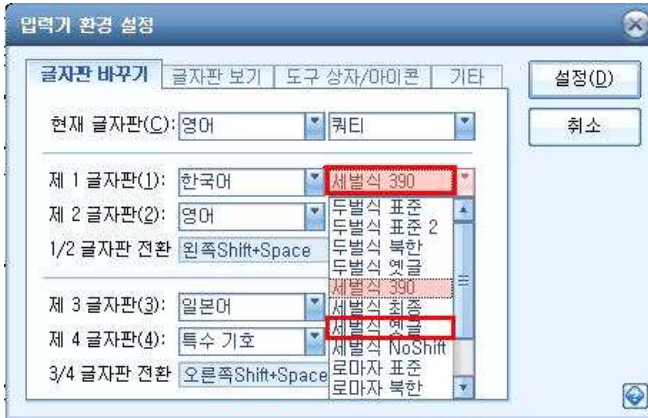
## 세벌식 한글 자판이 한글의 특성에 알맞다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던 1980년대 중반쯤에, 한국일보 신문 기사에서 한글 타자기로 유명한 공병우 박사의 미국 활동에 관한 글을 읽게 되었다. 그때만 해도 컴퓨터에서 한글 쓰는 방법이 컴퓨터 회사마다 방식이 다를 때였다. 영어 타자는 1973년에 이미 배워서 유학할 때 잘 썼다. 그렇지만, 한글 타자는 쓸 일이 없어서 안 배우고 있었는데, 그 기사를 보고 필라델피아에 계시던 공 박사님께 연락하여 매킨토시 컴퓨터에서 한글을 쓸 수 있는 프로그램과 폰트를 받아서 비로소 한글 타자를 배워서 쓰게 되었고, 또한 한글로 된 원고를 쓰기 시작하게 되었다.

글쓴이는 그때부터 세벌식 한글 자판을 쓰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세벌식 자판이 무엇인지도 잘 모른다. 간단히 풀이하자면, “각”이라는 글자마다 디를 칠 때, 두벌식 자판에서는 첫소리 글자 기억과 끝소리 글자 기억을 같은 글쇠(영어 r 글쇠)로 치는데, 세벌식 자판에서는 첫소리 글자 기억은 k 글쇠를 치고, 끝소리 글자 기억은 x 글쇠를 친다.

첫소리와 끝소리 글자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닿소리 글자로 다루면 한글을 닿소리와 홑소리 글자로 치므로 이를 두벌식 자판이라고 한다. 한편 첫소리와 끝소리 글자를 구별하면, 한글을 첫소리, 가운뎃소리, 끝소리 글자로 치므로 이를 세벌식 자판이라고 한다.

보기를 들어, 한컴의 한글 프로그램에서 도구 -> 글자판 -> 글자판 바꾸기 -> 390 세벌식을 고르면 세벌식 자판으로 칠 수 있다. 그리고 도구 -> 글자판 -> 글자판 보기를 하면 세벌식 글자판의 글자 배열이 나온다.



## 두벌식 한글 자판에 ㄱ, ㄷ, ㅁ, ㅌ, ㅍ 자리가 따로 있는 깊은 이유는?

기계식 타자기에서는 속도 등 여러 가지 점에서 분명히 세벌식이 두벌식보다 낫지만, 컴퓨터에서는 속도 차이는 별로 없는 듯하다. 다만 두벌식은 입력 과정에서, 끝소리 글자가 다음 순간에는 첫소리 글자로 바뀌는 현상은 불편하다.

보기를 들어 “하나로”를 두벌식으로 치면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니은이 처음에는 “한”이라는 잘못된 글자마디의 끝소리 글자로 잘못 보여지다가, 다음 순간에는 “한” 글자마디는 “하” 글자마디로 제대로 바뀌면서 니은은 “나”의 첫소리 글자가 된다. 리을도 마찬가지로 자리가 바뀐다.

ㅎ  
하  
한  
하나

하날  
하나로

그렇지만 세벌식 자판으로 치면 다음과 같이 니은은 처음 칠 때부터 첫소리 글자로 자리를 바로 잡으며, 리을도 마찬가지 이다.

ㅎ  
하  
하ㄴ  
하나  
하나ㄴ  
하나로

두벌식 자판에 ㄱ, ㄷ, ㅃ, ㅆ, ㅈ 다섯 개 겹글자의 글쇠가 왜 따로 있는지 아는 사람은 드문데,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다. 보기를 들어 두벌식으로 “ㄱ ㄴ ㄷ ㄹ ㅈ”라고 치면, “먹고”인지 “머꼬”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머꼬”는 “ㄱ ㄴ ㄷ ㄹ”라고 침으로써 이를 구별하기 위하여, ㄱ 글쇠가 따로 있는 것이다.

세벌식 자판으로 바꾸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루이빈 치과에서 세벌식 자판 스티커를 거저 나누어 주고 있다(<http://go-dent.com/service/sebeoltyping.html>). 그리고 세벌식 사랑 모임 세사모의 누리집 주소는 <http://paero3.myzip.co.kr/>이다.

## 옛 한글 자판은 글쓴이가 제안한 세벌식이 두벌식보다 훨씬 나아

그런데 위의 문제는 옛 한글 자판에서는 한층 더 심각해진다. 보기를 들어서, 두벌식으로 “ㄱ ㅌ ㅂ ㅅ ㄱ ㅌ”라고 치면, 글자 마디의 경계를 모르므로, “가빠”(ㅂㅅㄱ ㅌ), “갑빠”(ㅅㄱㅌ), “값가” 가운데 어느 것으로 보여주어야 할지 알 수가 없다. 옛 한글에는 겹글자가 워낙 많아서 모든 겹글자에 따로 글쇠를 줄 수도 없으므로, 옛 한글은 세벌식 자판이 훨씬 합리적이다.

한컴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하여 글쓴이가 제안한 세벌식 옛 한글 자판(위의 그림에 나오는 “세벌식 옛글” 자판)을 한글 프로그램에서 지원하고 있다. 옛 한글 쓰시는 분들이여, 이번 기회에 세벌식 자판으로 바꾸는 가능성을 생각해 보시라!

한글 워디안의 한글 세벌식 옛글 자판은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정보컴퓨터 공학부 김경석 교수가 개발하여 1993년 12월 31일 발표한 것입니다.(참고 문헌 : 컴퓨터 속의 한글 이야기. 김경석 지음. 영진 출판사, 1995.)

종합적으로 볼 때, 글쓴이는 세벌식 자판이 모아쓰는 한글의 특성에 맞다고 생각한다. 한글처럼 첫소리와 끝소리 글자를 구별하여 모아쓰는 글자계(script)는 거의 없다(유일하게 티베트 글자계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확실히 파악하지 못했다). 소릿값으로 보면 첫소리와 끝소리의 차이는 별로 없다고 하지만, 모아쓰기 한글을 처리할 때는 세벌식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본다.

현재도 세벌식은 사실상(de facto)의 복수 표준이지만, 특히 옛 한글을 고려할 때 세벌식을 공식적인 복수 표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 한글과 영어 속기 자판 모두 세벌식이다

속기라고 하여 빨리 치는 기술이 있는데, 그 전에는 속기용 특수 타자기로 하는 속기도 있었지만, 오늘날은 거의 모두 컴퓨터 속기를 한다(아주 옛날에는 손으로 하는 속기도 있었지만 이 글에서는 무시하기로 하자). 지금도 국회 등에서는 속기사가 회의록을 정리한다. 그런데 속기용 타자기나 컴퓨터에서 쓰는 속기용 자판은 모두 세벌식이다. 속기는 기본적으로 한 번에 한 글자씩 치는 게 아니라, 여러 글쇠를 한꺼번에 눌러서 한 소리마디씩 친다. 보기를 들어, “한”이라는 글자마디는 “ㅎ”, “ㅏ”, “ㄴ” 글쇠 세 개를 한꺼번에 친다. 그래야 글쇠를 한 개씩 칠 때보다 빨리 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만일 두벌식으로 “ㄱ”, “ㅏ”, “ㄴ” 글쇠 세 개를 한꺼번에 누르면 “간”인지 “낙”인지 구별할 수 없다. 더욱이 “각”과 같은 경우, 두벌식에서는 기억을 한꺼번에 두 번 누를 방법이 없으니 아예 칠 수조차 없다. 그래서 보통의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 자판은 두벌식을 쓰고 있음에도, 한글 속기 자판은 세벌식이다.

그러면 로마자를 쓰는 서양의 상황을 어떤지 살펴보자. 우리가 흔히 쓰는 영어 자판(이른바 QWERTY 자판)은 두벌식이다. 그렇지만, 영어 속기용 자판은 세벌식인데, 보기를 들어, M 글쇠가 두 개 따로 있어서 첫소리 M과 끝소리 M을 구별한다. 영어도 한글과 마찬가지로 여러 글쇠를 한꺼번에 눌러서 한 번에 한 소리마디를 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글은 고맙게도 이미 일반인을 위한 세벌식 자판이 있기 때문에, 세벌식 자판 거의 그대로 일반인도 그리 어렵지 않게 간단한 속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글쓴이가 처음으로 밝혀서 1990년대 중반에 이미 논문으로 낸 바 있으며(“일반인을 위한 속기”), 그 뒤 안마태 신부가 거의 같은 개념을 제안한 바 있다. 세종 임금은 이런 것까지 예상하지 못하고 한글을 만드셨겠지만, 컴퓨터 시대에 후손들이 연구해보니 이런 굉장



한 비밀이 한글에 들어 있었다.

## 앞으로: 북과 공동 표준화 사업 해 보는 게 꿈

20년 넘게 컴퓨터에서 한글을 처리하는 일을 하면서 느낌 점이 많이 있다. 특히 국제 표준화 기구(ISO)의 표준 ISO/IEC 10646에서 한글을 미국(실제로는 Unicode)의 눈으로 -다시 말하여 로마자에 익숙한 눈으로- 보고 표준화하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정말 힘들게 많이 싸웠다. 1년에 두세 번 국제회의에 참석하러 가는 발걸음은 무겁고, 가슴은 갑갑할 때가 많았다. 100% 원하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많은 경우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 그 과정에서 가슴앓이도 많이 하였다.

2000~2002년에 ISO의 JTC1/SC2 국제회의에 북쪽이 처음으로 6번 잇달아 참석하여 한글 관련 사항의 수정을 요청하였는데, 북 대표들이 원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마음이 아팠던 때도 있었다.

앞으로 한글과 관련된 국제 표준을 남북 공동 국가 표준으로 받아들이거나, 또는 남북 공동 국가 표준을 만드는 작업에 참여해 보고 싶은 것이 간절한 꿈이지만, 그동안의 경험과 정세로 보면 이른 시일 안에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 그래도 꿈을 잃지 않으련다.